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4. 22.(금) 조간 2022. 4. 21.(목) 11:00	배포 일시	2021. 4. 21.(목) 06:00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정원 (044-200-5313)

세계의 습지, 한국의 갯벌에서 미래를 찾다 - 4월 22일 보성 벌교생태공원에서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탄소흡수원인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22일 전남 보성 벌교생태공원에서 '2022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 (주최) 해양수산부, 환경부/(주관) 전라남도, 보성군, 해양환경공단

습지는 갯벌로 이루어진 연안습지와 호수·늪 등 내륙습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연안습지인 갯벌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한편, 바지락·낙지 등 각종 수산물을 생산하고,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는 등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세계 습지의 날'을 지정하여 습지보호를 위한 세계인의 약속인 '람사르협약'* 채택일(1971. 2. 2.)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월이 동절기인 계절 특성을 고려 2002년부터 4~5월에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97.7월 우리나라 가입)

이번 습지의날 기념식은 '세계의 습지, 한국의 갯벌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보성·순천·고창·서천·신안 지역에 걸쳐있는 '한국의 갯벌'은 높은 생물다양성과 전세계 주요 바닷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작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 한국의 갯벌 생물다양성(총 650종)은 유럽의 와덴해 갯벌(총400종) 세계자연유산 보다 1.6배 높음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갯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소중히 지켜낸 세계자연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할 의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보성군 관내 청소년 대표(2인)는 ‘미래세대의 유산인 갯벌을 잘 보전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청소년 선언문’을 낭독하며 갯벌과 해양생태계 보전의지를 다짐한다.

해양수산부는 기념식과 별도로 습지주간(4.18~4.24)을 지정하여 지방해양 수산청을 중심으로 연안정화 활동을 펼쳐 갯벌 보전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는 봄철 철새탐조, 생태교육, 세계유산 전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 온라인 플랫폼(facebook, Instagram 등)에 랍사르 협약, 세계습지의 날,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콘텐츠를 게재하고, 습지보호 약속하기 온라인 이벤트(4.11~4.24)*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가 200명을 넘으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친환경물품을 기부하고, 재단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나눠줄 계획이다.

* (습지보호 서약) 서약서 SNS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습지보전 3종 미션) 습지방문, 쓰레기 줍기, 해양생물 소개 등 3종 미션 인증 시 경품 제공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갯벌생태계 회복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갯벌의 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서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제17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계획(안)

□ 행사 개요

◆ (주제) 세계의 습지, 한국의 갯벌에서 미래를 찾다

* (주최)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관) 전라남도, 보성군, 해양환경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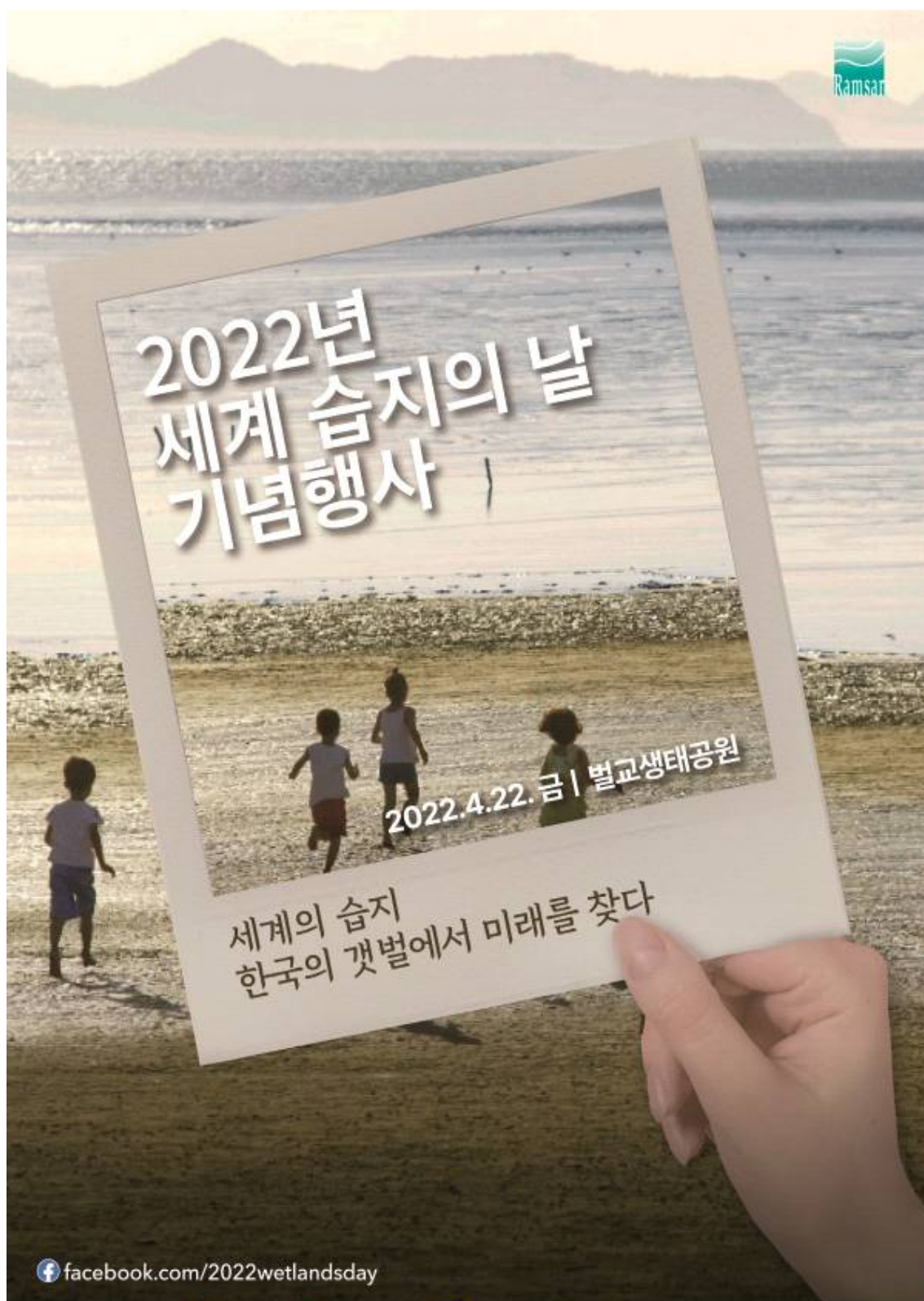
- (일시) '22. 4. 22(금). 13:30~14:30(60분)
- (장소)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생태공원 스포츠센터(실내)
- (주최) 해양수산부(총괄), 환경부 / (주관) 전라남도, 보성군, 해양환경공단
- (참석자) 정부, 광역·기초 지자체, 관계기관 등 200명 이내
- (기념식) 주요인사 말씀, 유공자 포상, 청소년 헌장, 주제 퍼포먼스 등
 - *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어서오션TV : <http://www.youtube.com/user/koreamof>)을 통해 생중계
- (부대행사) 스탬프 투어, 홍보부스 설치, 해양환경이동교실, 생태 사진전 등

□ 기념식 세부일정

구분	시간	주요 일정
기념식	13:00~13:30	• (등록) 참가자 등록, 내빈 입장 및 착석 • (식전영상) 별교갯벌 홍보영상 등
	13:30~13:32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13:32~13:35	• (주제영상) '한국의 갯벌' 홍보 동영상(또 하나의 우주, 습지)
	13:35~13:36	• 축전
	13:36~13:39	• 기념식 축하영상
	13:39~13:42	• 환영사
	13:42~13:54	• 축사
	13:54~14:57	• (청소년 헌장) 갯벌의 가치를 소중히 보전하겠다는 다짐 선언
	14:57~14:04	• 유공자 포상(5명)
	14:04~14:09	• 기념사
	14:09~14:15	• (축하공연) 지역문화단체 합창공연(전남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4:15~14:28	• 기념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14:28~14:30	• 폐회 선언

참고 2

제17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주최 |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관 | 전라남도 보성군 KOEM 해양환경공단

「함께 지킨 갯벌, 함께 지킬 습지」 선언문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꿈틀거리며 바다를 숨 쉬게 하는 갯벌은 인류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생태계의 보고이다.

우리가 아끼고, 함께 지킨 ‘한국의 갯벌’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전 세계 습지의 35%가 상실되었다. 습지의 보전은 생태계 자연치유력을 회복하게 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을 증가시킨다.

이에, 우리의 소중한 습지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생태계의 구현을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탄소흡수원인 우리의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와 탄소배출을 줄인다.

하나.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하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를 보호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우리 세대가 보전해서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2년 4월 22일
보성군 청소년 일동

참고 4

'22년 세계 습지의 날 참고 사진

□ 행사장 전경



□ 온라인 이벤트 및 서약서 이미지



□ 관련 온라인 플랫폼 주소

-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facebook.com/mofkor
- (해양수산부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orea_mof
- (습지의날 기념행사 공식 페이스북) facebook.com/2022wetlandsday